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평화의 나라 코스타리카의 민주시민교육

임수진

코스타리카에서는 어린이도 대통령선거에 참여한다. 세 살 어린이부터 18세 미만의 유소년이 대통령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모의선거다. 모의선거지만 어른이 투표하는 곳과 똑같이 만들어진 투표소에서 실제 입후보자에게 투표한다. 투표장까



투표하는 코스타리카 어린이(출처:<http://www.nacion.com>)



코르타리카의 수도 산호세 어린이박물관 투표소(출처:<http://www.nacion.com>)

지는 어른의 손을 잡고 가지만 실제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비밀·보통·평등·직접선거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처럼 코스타리카 국적의 세 살 이상의 유소년은 누구나 투표권이 있고, 전국의 투표소는 물론 재외공관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유소년의 투표 결과는 개표방송을 통해 어른의 투표 결과와 함께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은 투표소 안내나 투표용지 교부, 정당의 선거운동 지원 등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2014년 대통령선거는 재외공관을 포함하여 19개 투표소에서 28,445명의 유소년 유권자가 투표하였다. 이 날 참여한 유소년의 29.9%가 현 대통령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Luis Guillermo Solís)에게, 24.8%는 조니 아라야(Johnny Araya)에게 투표했다. 실제 선거에서도 이 두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여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유소년의 선거 결과와 성인의 선거 결과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결선투표는 80개 선거구에서 치러졌을 만큼 유소년의 참여율이 높았고, 이 날 여섯 살 이상 유소년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처음 시행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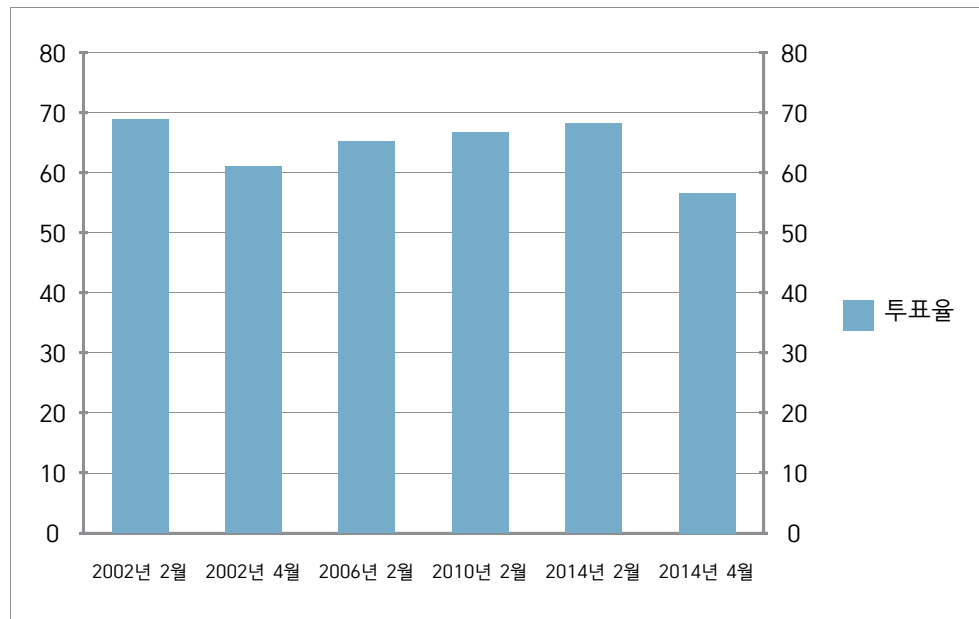
코스타리카의 유소년 투표는 1990년에 처음 시작됐다. 1989년 제정된



미국 어린이 투표 교육 운동(출처: <http://www.kidsvotingmissouri.org>)

어린이 인권법에 따라 어린이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시작한 것이다. 이 법은 투표 체험의 기회 부여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자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줄 알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 유소년은 선거에 앞서 몇 달 동안 정당과 선거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른과 같은 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른과 대화를 통해 정치교육이 이루어진다. 투표 결과는 공식적인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않지만, 유소년이 대통령선거에 의사를 직접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소년 선거를 실시하는 목적은 민주주의 교육과 참여하는 시민 양성에 있다. 바람직한 정치정향을 형성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책임 있는 시민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은 다르지 않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가정생활은 물론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도덕적인 시민의 자세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



코스타리카의 투표율(%) (출처: <http://www.electionguide.org/countries/id/53> 자료 재구성)

법을 배운다. 유치원 때부터 놀이로 바람직한 시민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민주주의 형성 과정을 학습한다. 모의선거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시민교육 과정이다. 미래의 유권자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정치와 선거를 자연스럽게 즐기고 참여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실습장이기 때문이다. ‘산호세 어린이박물관 투표소’ 사진은 코스타리카의 수도 산호세에 위치한 어린이박물관에 마련된 투표장 모습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손을 잡고 투표를 하고, 어린이에게 친근한 인형 탈을 쓴 자원봉사자가 투표 안내를 한다. 어린이에게 투표는 신나고 즐거운 축제다.

어릴 때부터 시민 교육을 받고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선거와 같은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게 된다. 코스타리카의 2014년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68%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18세에서 35세 사이 유권자의 투표율은 64%였다.⁸⁾ 다른 나라에서는 청년층 투표율이 낮아 고민이지만, 코스타리카의 청년은 당원 가입이나 선거 운동원 등록, 선거 자

8) 코스타리카의 선거제도는 의무투표이지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벌금, 규제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원봉사자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유소년 선거는 이웃 나라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1998년부터 코스타리카를 모델로 삼아 어린이 투표 교육 운동(Kids Voting USA)을 시작했다. 온두라스도 어린이 모의선거를 하고 있지만, 실제 후보에게 투표하지는 않는다. 과테말라는 5세에서 14세 사이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대통령선거일에 성인 유권자와 유소년이 같이 투표한다. 2011년 대선에는 280,000명이, 지난 대선에는 300,400명의 유소년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한다.

1964년부터 교육부 주도로 시행해오던 유소년 민주시민교육은 2009년 최고선거재판소가 민주시민교육연구소(IFED: Instituto de Formacion y Estudios en Democracia)를 설립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형 시민교육을 위해 설립된 민주시민교육연구소는 가정, 기업, 학교, 정부기관, 지역사회단체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교육에 반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피히테에 의하면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상으로 나라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한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군대를 폐지한 이후 국방비 지출에 쓸 예산을 복지와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전쟁 대신 평화와 공동체라는 가치를 학습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 카라소 오디오(Rodrigo Carazo Odio)⁹⁾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 “평화는 조약이나 협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화는 삶의 방식이 돼야 합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의 민주시민은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지켜가고 있다.

임수진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남미학부 교수

9) 1979-1982년 집권한 카라소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UN세계평화의 날을 발의하였으며, UN 평화대화를 코스타리카에 유치한 평화운동가이기도 하다. 퇴임 후에는 자신의 직업을 농부라고 소개하였고, 운전기사 겸 경호원 한 명만이 그를 수행했다. 현직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대통령도 평화로운 공동체의 한 시민이기 때문이다.